

전남도, 스마트 공장·상가지원한다

165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전통시장 5개소에 서비스 플랫폼 구축 동네슈퍼에도 심야 무인 운영 시스템

전남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디지털 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비대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장·상가지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지방비 30%를 추가 보조하고 있다. 2019년 129개 기업에 이어 지난해 165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으며, 올해 195개 기업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와 함께 질적 향상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신규 또는 고도화로 구분했던 지원 체계를 각 공장의 구축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고, 도입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시까지 1대 1 밀착 지원하는 스마트 코디네이터와 도입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후관리 전담팀 등 운영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한다. 비대면 기반 스마트 상가 도입도 본격화한다. 스마트 상가는 6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상인회, 번영회 등 조직화된 상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미러와 스마트 메뉴보드, 서빙 로봇 등 스마트기술은 물론 비대면 기반 모바일 예약·주문·결제시스템인 스마트오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남지역 3개 상가 내 180개소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6개 상가 36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 5개소에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스마트 전통시장 시범사업을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자생력 확보와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동네슈퍼에 스마트 출입구, 무인자판기 등을 지원해 낮시간에는 유인, 심야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스마트슈퍼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매년 50개소씩 전환해 오는 2025년까지 250개의 스마트슈퍼를 도입, 소상공인 노동시간 단축과 24시간 영업을 통한 추가 매출 창출을 유도한다. 소상공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팬데믹 상황으로 전 세계 모든 분야에 비대면 온라인 영역이 급속히 확장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는 필연적이다”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디지털화 전환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환기자



“무등산 공유화해야”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관정학협의회’ 관계자들이 5일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무등산 공유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전남소방, CF 패러디 ‘가족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제작

소화기·화재경보 설치 중요 강조
전남소방본부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알림경보기) 설치 촉진을 위한 이색홍보에 나섰다. 7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최근 CF 광고를 패러디한 ‘가족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제목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했다. 화재 예방과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관심이 많은 자녀가 가족에게 소화기와 화재알림경보기의 중요성을 알

려 주는 내용이다. 홍보영상은 전남소방 홍보 담당자와 직원 가족 6명이 출연해 지체 제작했으며, 전남소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소방당국은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알림경보기를 설치하도록 소방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전국의 소방서는 인명 피해 저감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있다. 화재 초기 소화기의 효과는 소방차

와 비슷하며 화재알림경보기는 천장에 부착만 하면 화재를 감지해 경보음으로 신속한 대피를 도와준다. 비용도 3만원대로 저렴하고 설치도 간단하다. 올해 전남소방은 전남도와 각 시·군 예산 10억원 가량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와 화재알림경보기를 취약계층에 보급한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2024년까지 주택화재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선물 대신 꽃” 광주시 화훼 소비촉진 운동 오늘부터 4월14일까지 캠페인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와 꽃가게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8일부터 4월14일까지 화훼 소비촉진 캠페인을 추진한다. 첫날인 8일에는 시청 시민홀에서 명절 선물 대신 꽃을 선물하는 ‘꽃피는 명절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1년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남이 어려워 못 만났던 친인척이나 친구들에게 동네 화원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꽃을 선물하도록 메시지를 통해 화훼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17일부터는 9차례에 걸쳐 매주 수요일 ‘꽃이 있는 날’을 운영해 비대면 꽃 무인판매를 실시하고 코로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과 시민들에게 꽃을 통해서 일상에 활력을 주는 ‘1인 1화분 키우기’도 추진기로 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밀 꾸러미 선물세트’도 판매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꽃을 특별한 날 구입하는 ‘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화 해 화훼 소비문화 저변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7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화훼농가 뿐만 아니라 화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 화훼업계 종사자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이 화훼 소비촉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동구 자원순환해설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홍보

광주 동구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자원순환해설사가 이달 2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올바른 배출방법’ 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2월 한 달간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올바른 배출방법’ 중점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자원순환해설사가 매주 2회 이상 남광주시장, 대신시장, 산수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원순환해설사들은 현장에서 30, 60, 200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사용해 올바르게 내놓은 상점의 사진을 찍어 홍보전단지 및 피켓에 사용해 시장상인들의 눈길을 끌며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서구, 코로나 대응 속 설 연휴 종합안정대책 마련

광주 서구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 주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주민생활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서구는 ▲설 특별 방역주간 운영,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소외계층 지원,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귀성객 안전 및 교통소통,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연료의 안정적 공급,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재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 처리 등 12개 항목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명절 연휴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남구, 상반기 ‘내수경제 활성화’ 838억원 분다

광주 남구는 상반기 중 838억원을 투입, 대규모 투자사업 및 소비분야에 대한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화에 나선다. 특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회복을 목표로 5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집행상황도 수시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남구는 5일 “올 한해 남구청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 1,396억원 가운데 838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까지 한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의 60% 가량을 시중에 풀어 생산과 소비, 분배를 통해 지역 내수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북구, 집합금지시설 등 349개 업체 민생안정자금 지원

광주 북구는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와 시민들을 위해 북구형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자금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사업장과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에 이어 두 번째다. 북구는 지난 2일 광주시가 발표한 제12차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지원 대상 중 집합금지시설, 운수업, 여행업 등 6개 업종 349개 업체에 총 1억 74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 “덕분에 공동체 지켰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7일 외국인주민 코로나19 검진 검사를 위해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된 하나은행 광산지점을 방문해 방역에 협조해준 은행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외국인주민과 설 인사를 나눴다. 김 청장은 은행에서 정민식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장 대표와 만나 먼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송금·환전 등을 진행하는 ‘외국인 특화 일요일점포’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이번 일요일에도 외국인주민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서 임시선별진료소 설치에 협조해준 점도 언급했다. 이날 오전10~오후2시 은행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익명·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임형택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남에서 제안한 슬로런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급여비	보험료	비율
고소득층	240,833원	1.1배
4분위	125,531원	1.7배
3분위	79,147원	2.1배
2분위	48,103원	2.7배
저소득층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